

# 方劑構成에 있어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研究

徐 富 一 \*

## Abstract

### A study on Conductant drugs in a prescription

Bu il-Seo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San University.

I studied conductant drug(使藥) in a prescription. As results of these studies, conductant drug(使藥) with meaning of medicinal guide(引經) were *Achyranthis Bidentatae Radix*(牛膝), *Platycodi Radix*(桔梗), *Cinnabaris*(朱砂), *Sal Maritimus*(食鹽), alcoholic drink(酒), *Cimicifugae Rhizoma*(升麻) and *Bupleuri Radix*(柴胡).

Conductant drugs with meaning of harmonizing medicines in a prescription were almost *Glycyrrhizae Radix*(甘草). And sometimes *Mel*(蜂蜜) was used with meaning of harmonizing medicines in pill. And *Jujubae Fructus* was used with meaning of harmonizing medicines in purgation medicines.

---

\* 慶山大學校 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 Key Word: conductant drug, 사약, medicinal guide, 인경, 인경약, harmonizing medicines, 諸藥調和, 군신좌사이론, 방제구성이론

## I. 序 論

方劑는 한가지 약물로 질병을 치료한 데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약물을 有機的으로 배합하게 되었고, 현재 사용하는 方劑는 대부분 두가지 이상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性質의 氣味와 歸經을 가진 약물을 배합하여 方을 이루고 일정한 치료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配伍方法이 있어야만 비로소 方劑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두된 配伍方法을 先人들은 “君臣佐使”의 체계를 제시하여 方劑의 組織形式과 각 약물간의 主從關係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임상에서도 처방을 함에 있어 이러한 배오방법을 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君臣佐使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처방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들이 君臣佐使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각각의 약물이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處方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論者는 이 번 연

구에서 使藥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물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 약물들은 각각의 약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效能中에서 어떠한 效能이 使藥으로 이용될 때 발휘되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처방을 君臣佐使의 이론에 맞추어 해석한 서적인 한방임상처방학<sup>1)</sup>, 방제학<sup>2)</sup>, 방약합편해설<sup>4)</sup>에 수록된 처방중에서 使藥으로 해설된 내용을 수집한 다음, 전통적인 君臣佐使理論중에서 使藥의 의미 두가지에 해당되는 것만을 다시 집중 분석하였다.

## III. 본 론

### 1. 解表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 (1) 辛溫解表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麻黃湯	麻黃 桂枝 杏仁 甘草	甘草	炙用하면 麻黃·桂枝의 藥性을 緩和시키고, 또한 麻黃 杏仁의 宣降不和를 조화한다 <sup>1,2)</sup> . 諸藥을 調和 <sup>2)</sup>
桂枝湯	桂枝 芍藥 生薑 大棗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하고 桂枝를 도와 助陽解表한다 <sup>1,2)</sup> .
		甘草	諸藥을 調和 <sup>4)</sup>
九味羌活湯	羌活 防風 蒼朮 細辛 川芎 白芷 生地黃 黃芩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 <sup>1,2)</sup>
香蘇散	香附子 紫蘇葉 甘草 陳皮	甘草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 <sup>2)</sup>

(2) 辛涼解表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銀翹散	金銀花 連翹 薄荷 牛蒡子 荊芥穗 淡豆豉 竹葉 蘆根 桔梗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 <sup>1,2)</sup>
桑菊飲	桑葉 菊花 杏仁 連翹 薄荷 桔梗 甘草 葦根(蘆根)	甘草	諸藥을 調和 <sup>2)</sup>
麻杏甘石湯	麻黃 杏仁 甘草 石膏	甘草	諸藥을 調和 <sup>2)</sup>
柴葛解肌湯	柴胡 乾葛 甘草 黃芩 羌活 白芷 芍藥 桔梗	甘草	諸藥을 調和 <sup>2)</sup>
升麻葛根湯	升麻 乾葛 芍藥 甘草(炙)	甘草	諸藥을 調和 <sup>2)</sup>
竹葉柳蒡湯	西河柳 淡竹葉 牛蒡子 葛根 蟬退 薄荷 荊芥 知母 玄參 麥門冬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 <sup>1)</sup>
竹葉柳蒡湯 加味	西河柳 淡竹葉 牛蒡子 葛根 蟬退 薄荷 荊芥 知母 玄參 麥門冬 甘草 石膏 冬米(晚硬米)	冬米	胃氣를 固護하여 益氣生津 <sup>1)</sup>

(3) 扶正解表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敗毒散	柴胡 前胡 川芎 枳殼 羌活 獨活 茯苓 桔梗 人蔘 甘草	甘草	益氣·諸藥을 調和 <sup>2)</sup>
加減葳蕤湯	生萎蕤 生葱白 桔梗 白薇 淡豆豉 薄荷 炙甘草 大棗	甘草, 大棗	炙甘草와 大棗의 甘潤은 津液을 증 가하게 하고, 또한 萎蕤의 滋陰潤燥 의 效능을 돕고 한편으로는 諸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으로 한다 <sup>2)</sup> .
加減葳蕤湯 (方藥指針)	萎蕤仁 石膏 葛根 白薇 羌活 杏 仁 甘草 川芎 防風 木香		炙甘草와 大棗는 甘潤增液하여 玉 竹의 滋陰潤燥를 도우며, 합하여 諸 藥을 調和하는 使藥이다 <sup>4)</sup> .

2. 瀉下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溫下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溫脾湯	附子 大黃 乾薑 人蔘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하면서 和中하므로 使 藥이 된다 <sup>2)</sup> .

(2) 潤下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麻子仁丸	麻子仁 杏仁 芍藥 大黃 枳實 厚朴 蜂蜜	蜂蜜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潤燥滑腸하므로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3. 和解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1) 和解少陽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小柴胡湯	柴胡 黃芩 人蔘 大棗 半夏 生薑 甘草	甘草	모든 약물을 조화 <sup>1,2)</sup>
		大棗, 生薑	和營衛한다 <sup>4)</sup> .
柴胡達原飲	柴胡 生枳殼 川朴 青皮 炙甘草 黃芩 苦桔梗 草果 檳榔 荷葉梗	荷葉梗, 甘草	荷梗은 清熱化濕, 清芬輕透하고,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하여 같이 使藥이 된다 <sup>2)</sup> .
蒿芩清膽湯	青蒿 淡竹茹 仙半夏 赤茯苓 黃芩 生枳殼 廣陳皮 碧玉散		赤茯苓은 健脾利濕, 碧玉散은 清利濕熱하므로 佐·使藥이다 <sup>2)</sup> .

4. 消導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枳實消痞丸	乾薑 炙甘草 麥芽麴 白茯苓 白朮 半夏麴 人蔘 厚朴 枳實 黃連	甘草	調和諸藥 <sup>2)</sup>
鼈甲煎丸	鼈甲 射干 黃芩 鼠婦 乾薑 大黃 桂枝 石葦 厚朴 瞿麥 紫葳 阿膠 柴胡 蜣螂 芍藥 牧丹皮 蟪蟲 蜂窠 赤硝 桃仁 人蔘 半夏 葶藶		桃仁·牧丹皮·紫葳·蜂窠는 活血祛瘀하고, 半夏·厚朴·射干·葶藶은 化痰行氣하며, 瞿麥·石葦는 利水祛濕하고, 柴胡·黃芩·白芍藥은 和少陽 疏肝氣하며, 桂枝·乾薑은 溫中散寒하고, 人蔘·阿膠는 補益氣血한다. 이상에 나열한 약은 모두 佐使藥이다 <sup>2)</sup> .

5. 溫裏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溫中祛寒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理中丸	乾薑 人蔘 白朮 甘草(炙)	甘草	乾薑의 溫性과 人蔘의 補하는 作用, 白朮의 燥性을  조화시키기  위함 <sup>1)</sup> . 補中扶正하게 하고 諸藥을  調화 <sup>2)</sup>
吳茱萸湯	吳茱萸 人蔘 大棗 生薑		生薑은 暖胃散寒하고 和中止嘔하며, 大棗는 益氣滋脾하고 아울러 溫燥를 막아주므로 佐使藥이다 <sup>2)</sup> . 生薑 大棗를 佐使藥으로 하여 그 辛甘·溫한 性味로 補虛하면서 溫中·降逆에 協助하고, 또한 諸藥을 調和하게 하였다 <sup>2)</sup> .
小建中湯	芍藥 桂枝 炙甘草 生薑 大棗 飴糖		生薑의 辛溫한 性과 甘草 大棗의 甘溫을 佐使藥으로 하여 溫中補虛함을  강화하고, 또한 諸藥을 調和한다 <sup>2)</sup> . 炙甘草는 和中益氣하고, 生薑 大棗는 調中和營衛하여 佐使藥이다 <sup>2)</sup> .

(2) 溫經通脈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陽和湯	熟地黃 鹿角膠 肉桂 炮乾薑 麻黃 白芥子 生甘草	甘草	化毒시키고,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溫經湯	吳茱萸 桂枝 當歸 川芎 白芍藥 阿膠 麥門冬 牡丹皮 人蔘 生薑 半夏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 <sup>1)</sup>
當歸四逆湯	當歸 桂枝 白芍藥 細辛 甘草 通草 大棗	甘草, 大棗	大棗와 炙甘草는 使藥이 되어 脾氣를 補益하고 諸藥을 調和하게 한다 <sup>2)</sup> .

6. 清熱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1) 清熱瀉火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白虎湯	石膏 知母 粳米 甘草(炙)	甘草	藥性を 조화한다 <sup>1)</sup> .
			甘草와 粳米는 益胃護津하여 寒涼藥으로 인한 脾胃의 損傷을 방지하는 佐·使藥이다 <sup>2)</sup> .
竹葉石膏湯	竹葉 石膏 半夏 麥門冬 人蔘 甘草 粳米	甘草, 粳米	甘草와 粳米는 益胃護津하고 또 胃得和降케 하여 嘔逆을 멈추게 하여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益胃生津하고 調和諸藥한다 <sup>2)</sup> .

(2) 清熱燥濕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龍膽瀉肝湯	草龍膽 黃芩 梔子 澤瀉 木通 車前子 當歸 生地黃 柴胡 生甘草	甘草	調和諸藥 <sup>1,2)</sup>
黃芩湯	黃芩 芍藥 甘草(炙) 大棗	甘草	藥性を 調和 <sup>1)</sup>
半夏瀉心湯	黃芩 黃連 乾薑 半夏 人蔘 大棗 甘草	甘草	藥性を 調和 <sup>1)</sup> 諸藥을 調和 <sup>2)</sup>

(3) 清熱解毒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仙方活命飲	金銀花 白芷 浙貝母 防風 赤芍藥 當歸尾 皂角刺 穿山甲 天花粉 乳香 沒藥 陳皮 生甘草	生甘草	清熱解毒하고, 藥性を 調和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1)</sup> .
普濟消毒飲	黃芩 黃連 陳皮 甘草 玄參 柴胡 桔梗 連翹 板蘭根 馬勃 牛蒡子 薄荷 僵蠶 升麻	升麻, 柴胡	升麻 柴胡 등은 風熱을 散解하면서 또한 諸藥을 頭面으로 上達하도록 하므로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4) 清臟腑熱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瀉白散	地骨皮 桑白皮 甘草 (炙)		粳米와 炙甘草는 養胃和中하고 肺氣가 損傷되는 것을 防止하므로 함께 佐使藥이다 <sup>2)</sup> .
玉女煎	石膏 熟地黃 麥門冬 知母 牛膝	牛膝	腎陰을 滋補함과 동시에 導熱引血下行하고 上炎하는 火를 下降시켜 上溢하는 血을 멈추게 하므로 使藥으로 한다 <sup>2)</sup> . 引熱下行 兼補肝腎 <sup>2)</sup>

(5) 淸虛熱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秦朮鼈甲散	地骨皮 柴胡 鼈甲 秦朮 知母 當歸		青蒿는 淸熱除蒸하고 透邪外出하게 하며, 烏梅는 淸熱生津하여 斂陰止汗하는 效능이 있어 佐使藥이다 <sup>2)</sup> .

7. 補益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補氣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參苓白朮散	人蔘 白朮 山藥 炙甘草 白茯苓 白扁豆 薏苡仁 蓮子肉 砂仁 桔梗	桔梗	手太陰肺經으로 引經한다 <sup>1)</sup> .
四君子湯	人蔘 白朮 茯苓 甘草(炙)	甘草	諸藥을 調和케 하고 和中한다 <sup>2)</sup> .
補中益氣湯	黃芪 甘草 人蔘 當歸 橘皮 升麻 柴胡 白朮	升麻, 柴胡	少量의 升麻 柴胡로 君藥을  협조하면서 下陷된 陽氣를 升提케 함 <sup>2)</sup>

(2) 補血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歸脾湯	白朮 茯神 黃芪 龍眼肉 酸棗仁 人蔘 木香 甘草(炙) 當歸 遠志	甘草, 生薑, 大棗	炙甘草 生薑 大棗를 使藥으로 하여 和胃健脾하여 生化를 도우면 氣는 왕성해지고 血은 充盈해진다 <sup>2)</sup> .

(3) 氣血雙補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八珍湯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人蔘 白朮 茯苓 甘草	生薑, 大棗	生薑 大棗를 使藥으로하여 脾胃의 氣를 調和하게 하였다 <sup>2)</sup>
炙甘草湯	炙甘草 生薑 人蔘 生地黃 桂枝 阿膠 麥門冬 麻仁 大棗	淸酒	助藥通脈 <sup>2)</sup>

(4) 補陰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一貫煎	北沙蔘 麥門冬 當歸身 生地黃 枸杞子 川楝子	川楝子	性은 비록 苦燥하나 大量의 甘寒한 養陰藥중에 들어가 있어 傷津할 염려 없고 도리어 肝氣를 疏泄해 주므로 使藥이 된다 <sup>2)</sup> .
加減地黃湯	熟地黃 山茱萸肉 山藥 澤瀉 牡丹皮 茯苓		茯苓은 淡滲脾濕하여 山藥의 益脾작용을 돕고, 澤瀉는 清泄腎火하여 山茱萸肉의 溫을 制하는 佐使藥이다 <sup>4)</sup> .

8. 固澁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1) 斂肺止咳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九仙散	罌粟殼 人蔘 阿膠 五味子 烏梅 款冬花 貝母 桑白皮 桔梗	桔梗	모든 약물을 이끌고 上行시켜 肺에 작용하게 한다 <sup>1)</sup> .

(2) 澀腸固脫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眞人養臟湯	罌粟殼 肉桂 肉豆蔻 訶子 人蔘 白朮 當歸 白芍藥 木香 炙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하고 和中한다 <sup>1)</sup> . 和中健脾하고 芍藥과 配伍되어 緩急止痛하게 하므로 使藥이다 <sup>2)</sup> .
四神丸	肉豆蔻 補骨脂 五味子 吳茱萸 生薑 大棗	生薑, 大棗	生薑은 溫胃散寒, 大棗는 補脾養胃하여 使藥이다 <sup>2)</sup> .

(3) 固崩止帶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完帶湯	白朮 山藥 人蔘 白芍 車前子 蒼朮 甘草 陳皮 黑芥穗 柴胡	甘草	調和諸藥 <sup>2)</sup>

9. 安神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1) 重鎮安神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朱砂安神丸	朱砂 黃連 當歸 生地黃 炙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또한 黃連의 苦寒한 藥性을 制約하여 脾胃를 너무 손상하게 되는 것을 防止한다 <sup>1)</sup> .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하고 脾胃를 保護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2) 滋養安神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酸棗仁湯	酸棗仁 白茯苓 川芎 知母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清熱하고 諸藥을 調和한다 <sup>2)</sup> .
天王補心丹	生地黄 人參 丹參 玄參 白茯苓 五味子 遠志 桔梗 當歸身 柏子仁 酸棗仁	桔梗, 朱砂	桔梗은 諸藥을 끌고 上行하며, 朱砂를 입힌 것은 心에 들어가 安神하게 하므로 使藥으로 한다 <sup>2)</sup>

10. 開竅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涼開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安宮牛黃丸	牛黃 麝香 犀角 黃芩 黃連 山梔子 龍腦 鬱金 雄黃 朱砂 珍珠 金箔衣 蜂蜜	蜂蜜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和胃調中한다 <sup>2)</sup> .
小兒回春丹	川貝母 陳皮 木香 白豆蔻 枳殼 法半夏 沈香 天竺黃 白僵蠶 全蝎 檀香 牛黃 麝香 膽南星 釣鈎藤 大黃 天麻 甘草 朱砂	甘草	清熱調藥 <sup>2)</sup> 化痰和藥 <sup>2)</sup>

(2) 溫開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蘇合香丸	蘇合香 麝香 安息香 冰片 青木香 白檀香 丁香 沈香 香附子 藿撥 白朮 乳香 烏犀角 朱砂 訶子 蜂蜜	蜂蜜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藿撥은 散寒止痛하고 開鬱의 效能을 강화하고, 犀角은 辟穢解毒하며, 朱砂는 鎮心安神에 작용한다. 白朮은 補氣健脾하여 祛濕하고, 訶子は 溫澁斂氣하는 效能이 있어 他藥의 辛香太過에 의한 正氣耗散을 방지하므로 佐使藥으로 한다 <sup>2)</sup> .

11. 治風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1) 疏散外風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消風散	當歸 生地 防風 蟬蛻 知母 苦參 胡麻 荊芥 蒼朮 牛蒡子 石膏 甘草 木通	甘草	諸藥을 調和 <sup>2)</sup>
大秦芎湯	秦艽 甘草 川芎 當歸 白芍藥 細辛 羌活 防風 黃芩 石膏 白芷 白朮 生地黃 熟地黃 白茯苓 獨活	甘草	調和諸藥 <sup>2)</sup>
川芎茶調散	川芎 荊芥 白芷 羌活 甘草 細辛 防風 薄荷		甘草는 諸藥을 調和하고, 淸茶로 복용하는 것은 茶葉이 苦寒하여 淸上하고 降下하므로 위 약물들의 過度한 溫燥 및 升散作用을 억제하여 升하는 가운데 降하게 하는 佐使藥이 된다 <sup>2)</sup> .
玉眞散	天南星 防風 白芷 天麻 羌活 白附子	酒, 童便	酒와 熱童便은 經絡을 疏通시킴으로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小活絡丹	川烏 草烏 蚯蚓 天南星 乳香 沒藥	蚯蚓, 陳酒	蚯蚓은 通經活絡하므로 使藥으로 하고, 陳酒는 藥勢를 도와 諸藥을 病所로 引導하여 使藥이다 <sup>2)</sup> .

(2) 平熄內風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羚羊鉤藤湯	羚羊角 鈞鉤藤 霜桑葉 菊花 白芍藥 鮮生地黃 竹茹 川貝母 茯神木 生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1,2)</sup> . 白芍과 배합하여 酸甘化陰하여 舒筋緩急한다 <sup>1,2)</sup> .
鎮肝熄風湯	懷牛膝 代赭石 生龍骨 生牡蠣 生龜板 玄參 天門冬 白芍藥 川楝子 茵陳 生麥芽 甘草	甘草	○甘草는 佐使藥으로 응용된다 <sup>1)</sup> . ○佐藥으로 쓰일 때는 麥芽와 서로 배합하면 健脾和胃調中하여 方中の 많은 金石·貝殼類 藥물이 胃에 부담이 되는  폐단을 방지한다 <sup>1)</sup> . ○使藥으로 쓰일 때는 藥性을 調和한다 <sup>1)</sup> .
天麻鉤藤飲	天麻 鈞藤 石決明 山梔子 黃芩 川牛膝 杜仲 益母草 桑寄生 夜交藤 硃茯神		杜仲 桑寄生은 肝腎을 補益시키고, 牛膝은 引血下行하며, 益母草는 活血利水하고, 夜交藤 茯神은 安神定志시키는 效능이 있어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阿膠鷄子黃湯	陳阿膠 生白芍藥 石決明 鈞鉤藤 生地黃 炙甘草 生牡蠣 絡石藤 茯神木 鷄子黃	絡石藤	舒筋通絡하므로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地黃飲子	熟乾地黃 巴戟天 山茱萸 石斛 肉蓯蓉 附子 五味子 官桂 白茯苓 麥門冬 菖蒲 遠志	生薑, 大棗, 薄荷	薄荷는 利咽하므로 少用하였고, 生薑과 大棗는 和中하고 營衛를 調和하므로 같이 使藥으로 한다 <sup>2)</sup> .

12. 理氣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行氣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逍遙散	柴胡 當歸 白芍藥 白茯苓 白朮 炙甘草 煨乾薑 薄荷 炙甘草	炙甘草	藥性を 調和한다 <sup>1)</sup> .
厚朴溫中湯	厚朴 陳皮 甘草 茯苓 草豆蔻仁 木香 乾薑	炙甘草 , 生薑	炙甘草와 生薑은 和중하고 諸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이다 <sup>2)</sup> .
順氣和中湯	黃芪 人蔘 白朮 當歸 白芍藥 陳皮 升麻 柴胡 蔓荊子 細辛 川芎	升麻, 柴胡, 蔓荊子, 細辛, 川芎	柴胡·升麻는 少陽과 陽明의 氣를 上昇시켜 百脈을 通해서 周身을 灌溉시키며, 川芎·蔓荊子·細辛은 淸利空曠시키므로, 이들 모두를 使藥으로 한다 <sup>4)</sup> .

(2) 降氣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蘇子降氣湯	蘇子 半夏 厚朴 前胡 肉桂 當歸 生薑 蘇葉 大棗 甘草(炙)	甘草 生薑 大棗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生薑과 大棗는 營衛를 調和하므로 使藥이 된다 <sup>2)</sup> .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시키므로 使藥이다 <sup>1,2)</sup> . 生薑은 散寒宣肺하여 佐藥이 되고, 生薑·大棗는 調和營衛하므로 모두 佐藥이 된다 <sup>1)</sup> .
止嗽散	紫菀 百部根 白前 桔梗 橘紅 甘草 荊芥 甘草(炙)	甘草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旋覆代赭湯	旋覆花 代赭石 生薑 半夏 人蔘 大棗 炙甘草	甘草	調和藥性 <sup>1)</sup> . 補脾益氣의 人蔘과 補虛和中的 炙甘草·大棗로 胃氣를 扶助하는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橘皮竹茹湯	橘皮 竹茹 大棗 生薑 甘草 人蔘		甘草와 大棗는 益氣和胃하므로 佐使藥이다 <sup>2)</sup> . 甘草와 大棗는 益氣和胃, 調和諸藥하므로 佐使藥이다 <sup>2)</sup> .

13. 活血祛瘀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血府逐瘀湯	桃仁 紅花 當歸 川芎 赤芍藥 生地黃 牛膝 柴胡 桔梗 枳殼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1)</sup> .
生化湯	全當歸 川芎 桃仁 乾薑 甘草(炙)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2)</sup> .
桃核承氣湯	桃核 大黃 桂枝 甘草(炙) 芒硝		炙甘草는 調胃安中하게 하고 아울러 諸藥의 峻烈한 性を 緩和해주므로 佐·使藥이다 <sup>2)</sup> .

14. 止血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黄土湯	竈心土 白朮 附子 生地黄 阿膠 黃芩 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1,2)</sup> .
十灰散	大蓴 小蓴 荷葉 側柏葉 茅根 茜根 山梔 牡丹皮 棕櫚皮	藕汁이나 蘿藤汁에 京墨을 간 것	清熱止血효과를 增強하고 導熱下行한다 <sup>2)</sup> .
膠艾湯	川芎 阿膠 艾葉 甘草 當歸 芍藥 乾地黄	甘草, 清酒	甘草는 緩急止痛하고, 清酒는 宣行藥勢한다 <sup>2)</sup> .
槐花散	槐花 側柏葉 荊芥穗 枳殼		枳殼은 行氣寬中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15. 祛濕利水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1) 芳香化濕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平胃散	蒼朮 厚朴 陳皮 生薑 大棗 甘草	甘草	藥性を 調和한다. <sup>1,2)</sup>
		甘草	中洲의 主藥이며 能補, 能和하여 中을 和하여 諸藥을 調和시키며 濕土의 底까지 和平시킨다 <sup>4)</sup> .
藿香正氣散	大腹皮 白芷 紫蘇葉 茯苓 半夏麴 白朮 陳皮 厚朴 苦桔梗 藿香 甘草	甘草, 生薑, 大棗	生薑과 大棗는 脾胃를 調和하고, 甘草는 諸藥을 調和하므로  함께 使藥이다 <sup>2)</sup> .
			茯苓·白朮·甘草는 益脾祛濕하여 正氣를 補하므로 臣과 使로 하였다 <sup>4)</sup> .

(2) 滲濕利水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防己黃芪湯	防己 黃芪 白朮 甘草	甘草, 生薑, 大棗	甘草가 培土하고 諸藥을 調和하며, 生薑과 大棗는 營衛를 調和하게 된다 <sup>2)</sup> .

(3) 溫化水濕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實脾飲 (實脾散)	乾薑 炮附子 白朮 茯苓 草果仁 厚朴 木香 檳榔 木瓜 生薑 大棗 炙甘草	甘草	諸藥을 調和한다. <sup>1,2)</sup>
苓桂朮甘湯	茯苓 桂枝 白朮 甘草	甘草(炙)	調和諸藥 <sup>2)</sup>
葶藶分清飲	益智仁 葶藶 石菖蒲 烏藥	食鹽	鹹味로 하여금 腎臟으로 들어가게 한다 <sup>2)</sup> .

(4) 攻逐利水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舟車丸	甘遂 大戟 芫花 大黃 黑丑 青皮 陳皮 木香 檳榔 輕粉 大棗	大棗	大棗를 甘草 대신 배합함으로써 益氣和胃하고 諸藥을 調和하는 藥물로 구성된다 <sup>1)</sup> .

(5) 祛風勝濕劑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羌活勝濕湯	羌活 獨活 防風 藁本 川芎 蔓荊子 炙甘草	炙甘草	藥性を 調和시키고, 方 중에 배합하여 모든 藥물을 協同하는 작용을 한다 <sup>1)</sup> . 諸藥을 調和 <sup>2)</sup>
獨活寄生湯	獨活 防風 秦艽 桂心 細辛 桑寄生 牛膝 杜仲 當歸 地黃 川芎 白芍藥 人蔘 茯苓 甘草	甘草	모든 藥을 調和한다 <sup>1)</sup> .

16. 去痰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燥濕化痰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二陳湯	半夏 橘紅 茯苓 生薑 烏梅 炙甘草	炙甘草	藥性を 調和한다 <sup>2)</sup> . 諸藥을 調和 <sup>1)</sup>

(2) 溫化寒痰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苓甘五味薑辛湯	乾薑 細辛 茯苓 五味子 炙甘草	甘草	和中하여 諸藥을 調和하여 使藥이 된다 <sup>1,2)</sup> .

(3) 治痰截瘧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截瘧七寶飲	常山 檳榔 草果仁 厚朴 青皮 陳皮 炙甘草	炙甘草	諸藥을 調和하고 益脾하므로 使藥이 된다 <sup>1)</sup> .

17. 驅蟲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烏梅丸	烏梅 細辛 蜀椒 桂枝 附子 乾薑 人蔘 當歸 黃連 黃柏 蜂蜜	蜂蜜	諸藥을 調和 <sup>1,2)</sup>
肥兒丸	使君子 檳榔 神麩 麥芽 木香 肉豆蔻 黃連 猪膽汁	猪膽汁	猪膽汁은 丸을 만들고 黃連과 더불어 배합되어 肝胃의 熱을 瀉하므로 使藥이 된다 <sup>1)</sup> .
布袋丸	夜明砂 蕪荑 使君子 白茯苓 白朮 人蔘 甘草 蘆薈	甘草	蜜炙한 甘草는 補中益氣하고 또한 諸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18. 祛暑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1) 祛暑清熱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清絡飲	鮮荷葉 鮮金銀花 絲瓜皮 西瓜 鮮扁豆花 鮮竹葉心		清陽을 升하게 하고 暑濕을 散하는 鮮荷葉을 사용하여 散邪를 補助하며, 清心利水하여 導熱下行하게 하는 鮮竹葉心으로 邪氣를 下泄하게 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鮮荷葉은 清熱祛暑하고, 鮮竹葉心은 清心利水하여 佐使藥 <sup>2)</sup>

(2) 清暑益氣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清暑益氣湯	西洋蔘 石斛 麥門冬 黃連 竹葉 荷梗 知母 甘草 粳米 西瓜翠衣	甘草, 粳米	甘草와 粳米는 益胃和中하여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19. 治燥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1) 輕宣潤燥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약물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杏蘇散	紫蘇葉 半夏 茯苓 前胡 苦桔梗 枳殼 甘草 生薑 橘皮 杏仁 大棗	生薑, 大棗	生薑과 大棗는 營衛를 調和하고 諸藥을 調和하게 하므로 使藥이다 <sup>2)</sup> .
桑杏湯	桑葉 杏仁 沙參 象貝母 香豉 梔子皮 梨皮		梔子는 上焦의 肺熱을 清泄하고, 象貝母는 止咳去痰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清燥救肺湯	冬桑葉 石膏 人蔘 甘草 胡麻仁 眞阿膠 麥門冬 杏仁 枇杷葉		杏仁·枇杷葉은 肺氣의 逆을 降泄하여 平喘하고, 阿膠와 胡麻仁은 潤肺養陰하며, 人蔘 甘草는 益氣和中함으로써 肺經의 燥熱을 清泄하고 겸하여 養陰益氣하는 佐·使藥이 된다 <sup>2)</sup> .

(2) 滋陰潤燥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養陰清肺湯	生地黃 麥門冬 生甘草 玄參 貝母 牡丹皮 薄荷 炒白芍	生甘草	生甘草로 瀉火解毒하고 또한 諸藥을 調和하게 한다 <sup>2)</sup> .
百合固金湯	生地黃 熟地黃 麥門冬 百合 白 芍 當歸 貝母 生甘草 玄參 桔梗	生甘草	諸藥을 協助하면서 桔梗과 配伍되어 咽喉를 利하게 하므로 使藥이다 <sup>2)</sup> .
麥門冬湯	麥門冬 半夏 人蔘 甘草 粳米 大棗	粳米, 大棗, 甘草	甘草 大棗 粳米 등으로 脾胃의 氣陰을 補益시킴으로써 津液이 스스로 上行하여 肺로 들어가 滋養되며, 清熱利咽하고 겸하여 諸藥을 調和하는 使藥이 된다 <sup>2)</sup> .

20. 表裏雙解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解表清利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葛根黃芩黃連湯	葛根 甘草(炙) 黃芩 黃連		炙甘草는 甘緩和中和하고 諸藥을 調和하여 佐使藥이다 <sup>2)</sup> .

21. 癰瘍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1) 治外瘍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는 藥物에 관한 조사

處方名	處方構成	使藥	使藥의 效能
犀黃丸	牛黃 麝香 乳香 沒藥 黃米	黃米飯, 陳酒	米飯은 胃氣를 調養하여 그 邪氣가 胃를 障礙하지 못하게 하고, 陳酒를 조금 가하면 行氣活血하여 藥勢를 돕게 되므로 함께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陽和湯	熟地黃 肉桂 麻黃 鹿角膠 白芥子 薑炭 生甘草	生甘草	甘草를 生用한 것은 膿毒을 풀어주면서 諸藥을 調和케 하므로 使藥으로 하였다 <sup>2)</sup> .
透膿散	生黃芪 當歸 穿山甲 皂角刺 川芎		穿山甲과 皂角刺는 消散通透하는  효능이 있어 病所에 直達하여 軟堅潰膿하게 하고, 약간의 술을 가하면 通絡行瘀하여 藥력을 補助케 하므로 모두 佐·使藥으로 한다 <sup>2)</sup> .

## IV. 考 察

君臣佐使理論은 先人들이 제시한 配伍方法으로, 그 목적은 方劑의 組織形式과 각 약물간의 主從關係를 설명하는데 있다<sup>2)</sup>. 따라서 歷代 諸家들은 君臣佐使를 매우 중요시 하였으며, 君臣佐使에 의하여 組方用藥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내려오면서 君臣佐使의 組方理論이 좀 등한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고, 또 處方의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論者는 先人들의 組方理論인 君臣佐使理論의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먼저, 先人들의 處方을 君臣佐使의 이론에 맞추어 해석해봄으로써 새로운 組方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된 이번 연구는 君臣佐使의 理論중에서 使藥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물들을 既存의 處方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약물들의 처방에서의 역할과 그 약물들이 지니고 있는 본초학적 효능중에서 응용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임상에서 처방할 때에는 君臣佐使 약물의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각 약물의량은 대체로 方 중에서 君藥의 量이 많으며, 臣佐使藥은 病情과 藥性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당량을 선택하게 된다<sup>1)</sup>. 그러므로, 의학자들의 처방해석에 따라서 君臣佐使의 약물에 대한 해석에서도 약간은 相違點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使藥에는 두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방중의 모든 약들이 病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引經의 약물이며, 둘째는 調和藥으로 처방중의 모든 약물의 偏性을 조화시키는 의미가 들어 있다<sup>1,2)</sup>. 따라서, 論者도 使藥의 관점을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국한하여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많은 한약재중에서 使藥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먼저, 使藥의 두가지 의미중에서 引經의 의미로 사용된 약물을 살펴보면, 普濟消毒飲에서는 升麻 柴胡는 諸藥을 頭面으로 上達하도록 하므로 使藥으로 하였다<sup>2)</sup>. 牛膝이 引熱下行하고 겸하여 下焦의 肝腎으로 들어가서 補하게 하는 목적으로 玉女煎에 이용되었다. 또 牛膝은 引血下行하여 天麻鉤藤飲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桔梗이 參苓白朮散에서 手太陰肺經으로 引經하기 위해서 使藥으로 이용되었으며, 九仙散에서 桔梗은 약물을 이끌고 上行시켜 肺에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使藥으로 이용되었으며, 天王補心丹에서는 諸藥을 이끌고 上行하게 하기 위하여 桔梗이 사용되었다. 朱砂는 天王補心丹에서 心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朱砂衣의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며, 葶藶分清飲에서 食鹽은 腎臟으로 引經하기 위해서 使藥으로 이용되었다. 또 藥勢를 잘 퍼주면서 病所로 이끌어 주는 의미로 酒가 引經藥으로 활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小活絡丹, 犀黃丸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使藥의 의미중에서 處方中の 모든 약물의 偏盛을 조화시켜주는 의미로 사용된 약물을 보면, 處方의 效能에 制約이 없이 매우 많은 레에서 甘草가 사용되어 諸藥의 調和를 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甘草는 甘平한 性味를 지니고 있고, 和中緩急, 潤肺, 調和諸藥, 解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sup>3)</sup>, 이러한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使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調和諸藥의 약효만으로 처방에서 활용되었다. 또한 甘草의 修治 즉 生이나 炙에 상관없이 處方의 목적된 바에 따라서 적절히 修治되고 배합되어 調和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諸藥調和의 목적으로 蜂蜜이 드물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麻子仁丸, 安宮牛黃丸, 蘇合香丸, 烏梅丸의 예가 그러하였다. 蜂蜜의 경우는 性味が 甘平하고, 補中, 潤燥, 止痛, 解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甘和하여 百藥을 調和하는 효



능을 甘草처럼 지니고 있다<sup>3)</sup>. 따라서, 蜂蜜이 使藥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甘和한 성질로 百藥을 調和하는 효능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大棗가 諸藥을 調和하는 경우로 甘草대신에 舟車丸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大棗는 性味가 甘溫하며, 補脾和胃, 益氣生津, 調營衛, 解藥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sup>3)</sup>, 攻下藥과 同用하면 모든 약의 峻烈한 性을 緩和하여 邪氣를 攻下함에 있어 正氣를 損傷하지 않게 하고, 또한 脾胃를 補養하여 攻逐의 작용이 太過되는 弊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다<sup>3)</sup>. 따라서, 攻下藥과 같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大棗가 解藥毒하여 調和諸藥하는 의미로 使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使藥으로 이용되었다고 方解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매우 많았으나, 전통적인 使藥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볼 때 使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竹葉柳葶湯加味에서는 冬米를 使藥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引經藥이나 諸藥調和의 의미가 아닌 胃氣를 固護하여 益氣生津하는 목적으로 해석되므로 使藥으로 보기 보다는 君藥이나 臣藥의 峻烈한 藥性을 制約하는 즉 佐藥性의 藥이 胃氣를 袞아주는 성질을 制約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加減葶蕤湯에서는 大棗를 使藥으로 보고 있으나, 해설에 보면 君藥인 葶蕤의 滋陰潤燥를 돕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sup>2)</sup>, 使藥으로 보기 보다는 佐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加減葶蕤湯(方藥指針方)에서는 炙甘草와 大棗는 甘潤增液하여 玉竹의 滋陰潤燥를 도우며, 합하여 諸藥을 調和하는 使藥이라고 하였으나<sup>4)</sup>, 大棗는 甘潤增液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약합편해설에서 小柴胡湯 해설에 보면 生薑과 大棗를 使藥으로 설정하고 和營衛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sup>4)</sup>, 營衛를 和하여 君藥인 柴胡가 少陽의 氣를 達表케 하는 것을 도와주어 치료효과를 증강하게 하는 佐藥의 의미이지 使藥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며, 이미 같은 처방에서 甘草를 使藥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sup>2)</sup>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柴胡達原飲에서는 荷葉梗도 使藥으로 보고 있으나<sup>2)</sup>, 清熱化濕하고 清芬輕透한다고 작용을 해설하고 있으므로 君藥인 柴胡나 黃芩을 도와주는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佐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蒿芩清膽湯에서는 赤茯苓은 健脾利濕, 碧玉散은 清利濕熱하므로 佐·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君藥인 青蒿와 黃芩의 효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므로, 단지 佐藥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鼈甲煎丸에서 桃仁·牡丹皮·紫葳·蜂窠는 活血祛瘀하고, 半夏·厚朴·射干·葶藶은 化痰行氣하며, 瞿麥·石葦는 利水祛濕하고, 柴胡·黃芩·白芍藥은 和少陽 疏肝氣하며, 桂枝·乾薑은 溫中散寒하고, 人蔘·阿膠는 補益氣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약을 모두 佐使藥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桃仁·牡丹皮·紫葳·蜂窠는 活血祛瘀하고, 半夏·厚朴·射干·葶藶은 化痰行氣하며, 瞿麥·石葦는 利水祛濕하고, 柴胡·黃芩·白芍藥은 和少陽 疏肝氣하며, 桂枝·乾薑은 溫中散寒하는데, 이러한 약물은 모두 君藥인 鼈甲이나 臣藥의 약효인 軟堅散結化癥의 효능을 증강하기 위한 佐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人蔘·阿膠는 補益氣血한다고 하였는데, 이 약들 역시 鼈甲의 胃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약이 강렬한 藥性을 지니므로 正氣를 길러 주어 緩化慢消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로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吳茱萸湯에서는 生薑과 大棗를 佐使藥으로 해석하면서, 生薑은 暖胃散寒하고 和中止嘔하며, 大棗는 益氣滋脾하고 아울러 溫燥를 막아 준다고 하였으나,<sup>2)</sup> 이러한 효능은 佐藥이 하는 것이므로 使藥의 효능을 겸한다고 보기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當歸四逆湯에서는 大棗를 甘草와 같이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調和諸藥은 甘草의 효능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며, 大棗는 益氣, 生津液하는 효능이 있으므로<sup>5)</sup>, 溫經散寒하고 養血通脈하는 通脈四逆湯의 효능을 도와주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굳이 使藥으로 본다면 大棗가 緩和, 解藥毒하는 효능이 있으나<sup>5)</sup>, 이 처방에서는 이러한 효능으로 인하여 調和諸藥의 의미로 보기에 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竹葉石膏湯에서 粳米를 甘草와 같이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약효 해설에서는 益胃護津하고 또 胃得和降케 하여 嘔逆을 멈추게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효능은 臣藥인 人蔘의 효능을 도와주는 佐藥의 의미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瀉白散에서는 粳米와 炙甘草는 養胃和中하고 肺氣가 損傷되는 것을 防止하므로 함께 佐使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sup>2)</sup> 君藥의 偏性 즉 胃와 氣가 손상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한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秦艽鼈甲散에서는 青蒿는 清熱除蒸하고 透邪外出하게 하며, 烏梅는 清熱生津하여 斂陰止汗하는 효능이 있어 佐使藥이라고 하였으나<sup>2)</sup>,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補中益氣湯에서 升麻와 柴胡를 使藥으로 보는 견해<sup>2)</sup>도 있었으나, 그 해설을 보면 少量의 升麻 柴胡로 君藥을 협조하면서 下陷된 陽氣를 升提케 한다<sup>2)</sup>라고 되어 있고, 방약합편해설<sup>4)</sup>에 의하면 升麻는 陽明의 清氣를 升

하고, 柴胡는 少陽의 清氣를 升하니 人蔘 黃芪와 작용해서 升學清陽 升提下陷하게 한다고 하므로, 君藥인 黃芪나 臣藥인 人蔘을 협조하여 치료효과를 증강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一貫煎은 肝腎陰虛로 血燥氣鬱되어 肝氣의 疏泄機能이 不舒하여 나타나는 胸脇疼痛을 치료하는 처방인데<sup>2)</sup>, 川楝子는 肝氣를 疏泄해 주므로 使藥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나<sup>2)</sup>, 君藥이나 臣藥을 도와 兼證을 치료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加減地黃湯에서는 茯苓은 淡滲脾濕하여 山藥의 益脾작용을 돕고, 澤瀉는 清泄腎火하여 山茱萸肉의 溫을 制하는 佐使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sup>4)</sup> 佐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川芎茶調散에서는 甘草는 諸藥을 調和하고, 清茶로 복용하는 것은 茶葉이 苦寒하여 清上하고 降下하므로 위 약물들의 過度한 溫燥 및 升散作用을 억제하여 升하는 가운데 降하게 하는 佐使藥이 된다<sup>2)</sup>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清茶의 경우에는 君藥을 비롯한 나머지 약들의 過度한 溫燥 및 升散作用을 억제하는 佐藥으로 보는 견해가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玉眞散에서는 酒와 童便을 使藥으로 해설하고 있으나<sup>2)</sup>, 처방에서의 역할은 經絡을 疏通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使藥의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君藥인 白附子와 天南星의 藥效를 도와주어 去風化痰, 解痙止痛하게 하는 佐藥의 의미로 이해된다. 다만, 玉眞散은 經脈이 拘急하게 된 병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酒의 경우에는 經絡을 疏通하면서도 經脈으로 약효가 잘 퍼져나가도록 引導하는 역할도 하므로 이러한 견해로 보면 使藥의 범위에 넣어도 좋을 것 같다. 童便은 止血消瘀, 滋陰降火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sup>6)</sup>, 消瘀의 효능이 이 처방에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小活絡丹에서는 蚯蚓과 陳酒를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蚯蚓의 경우에는 通經活絡의 효능을 지니고 있어 使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陳酒는 藥勢를 도와서 諸藥을 病所로 引導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使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天麻鉤藤飲에서 杜仲 桑寄生은 肝腎을 補益시키고, 牛膝은 引血下行하며, 益母草는 活血利水하고, 夜交藤 茯神은 安神定志시키는 효능이 있어 佐·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牛膝의 引血下行하는 의미 외에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阿膠鷄子黃湯에서는 絡石藤을 使藥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효능을 舒筋活絡한다고만 하여 使藥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지만<sup>2)</sup>, 이러한 효능은 使藥이라고 보기보다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굳이 陰液이 損傷되어 筋이 영양받지 못하는 것을 藥勢를 이끌고 風動의 부위인 筋으로 가게 하여 舒筋活絡의 효능을 보게 하는 효과로 해석한다면 使藥의 개념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地黃飲子에서 薄荷는 利咽하기 때문에 使藥이라고 하였으나<sup>2)</sup>, 이는 瘡癩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된 효능으로 파악되므로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굳이 使藥으로 설명하려면 瘡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효를 목이나 위쪽부위로 끌고가서 失音을 해소하는 목적의 引經藥으로 이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으며, 生薑과 大棗의 경우에는 和中하여 이 약의 흡수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sup>7)</sup>, 生薑과 大棗이 두가지 약을 使藥의 의미로 본다면 전통적인 使藥의 의미와는 견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生薑은 開竅化痰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開竅化痰하는 다른 佐藥인 菖蒲, 遠志, 茯苓과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며, 大棗는 陰을 補

하는 다른 약과 결합하여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처방에서는 生薑과 大棗의 배합의미가 약효의 흡수촉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厚朴溫中湯에서 生薑을 和中하고 諸藥을 調和한다고 하여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生薑은 諸藥을 調和하는 효능은 없으며, 和中하는 효능은 있는데 이 효능으로 生薑을 使藥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며, 또 여기서는 和中하면서도 君藥인 厚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미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佐藥에 넣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順氣和中湯은 氣虛로 발생하는 頭痛을 다스리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sup>4)</sup>, 柴胡·升麻는 少陽과 陽明의 氣를 上昇시켜 百脈을 通해서 周身을 灌溉시켜서 使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상부로 이끌어 주는 의미로 使藥으로 해설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방약합편의 해설처럼 川芎·蔓荊子·細辛은 體輕하여 上浮하며 清利孔竅시키므로 引經의 의미인 使藥으로 볼 수도 있으나<sup>4)</sup>, 이 처방의 적용증인 頭痛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므로 치료효과를 증강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十灰散은 처방의 약물을 가루내어 藕汁이나 蘿菈汁에 京墨을 갈아 적당량 넣어 먹는 처방인데<sup>2)</sup>, 처방해설에서 藕汁이나 京墨, 蘿菈汁을 使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sup>2)</sup>, 藕汁은 清熱涼血하는 효능이 있으며<sup>5)</sup>, 蘿菈는 消積, 化痰熱, 下氣, 寬中, 解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性이 涼하여 吐血, 鼻出血을 치료하는 약물이며<sup>5)</sup>, 京墨 또한 止血效能을 지니고 있는 약물이다<sup>4)</sup>. 따라서, 이 약물은 引經藥의 의미보다는 君藥이나 臣藥을 협조하여 치료효과를 증강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견해는 한방임상처방학<sup>1)</sup>에서 藕汁이나 蘿菈汁과 京墨으로 調製하는 것은 清熱涼血의 효능을 증강한다고만 이

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만 導熱下行하여 炎上하는 血熱妄行을 억제하기 때문에 使藥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고 사료된다.

槐花散에서 枳殼은 行氣寬中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다<sup>2)</sup>고 되어 있으나, 君藥인 槐花와 臣藥인 側柏葉, 荊芥穗의 止血 疏風 清濕熱하는 효과를 돕기 위한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肥兒丸에서 豬膽汁을 使藥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sup>1)</sup>, 諸藥調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引經藥으로 사용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肥兒丸은 殺蟲消疳, 健脾清熱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肝熱을 치는 것이 처방의 주된 효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수적인 효능을 치료하여 君·臣藥을 도와서 兼證을 치료하는 佐藥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清絡飲에서는 清陽을 升하게 하고 暑濕을 散하는 鮮荷葉을 사용하여 散邪를 輔助하며, 清心利水하여 導熱下行하게 하는 鮮竹葉心으로 邪氣를 下泄하게 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으나,<sup>2)</sup> 이것은 祛暑清熱化濕하는 鮮金銀花와 鮮扁豆花의 효능을 보조하는 佐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清暑益氣湯에서는 甘草와 粳米는 益胃和中한다고 하여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만약 이러한 효능으로 처방에 甘草와 粳米를 사용하였다면 君藥인 西洋參의 益氣의 효능을 증강하는 佐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桑杏湯에서는 梔子是 上焦의 肺熱을 清泄하고, 象貝母는 止咳去痰하므로, 佐·使藥으로 하였는데<sup>2)</sup>, 君藥인 桑葉 杏仁, 臣藥인 沙參 梨皮의 효능을 도와주기 위한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清燥救肺湯에서는 杏仁·枇杷葉은 肺氣의 逆을 降泄하여 平喘하고, 阿膠와 胡麻仁은 潤

肺養陰하며, 人蔘 甘草는 益氣和中함으로써 肺經의 燥熱을 清泄하고 겸하여 養陰益氣하는 佐·使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sup>2)</sup>, 이러한 효능으로 사용하였다면 君藥이나 臣藥의 효능을 증강하거나, 직접 兼證이나 次要 증상을 치료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甘草는 調和諸藥의 효능을 한다고 보면 甘草만을 使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麥門冬湯에서는 甘草 大棗 粳米를 使藥으로 설명하여, 甘草 大棗 粳米 등으로 脾胃의 氣陰을 補益시킴으로써 津液이 스스로 上行하여 肺로 들어가 滋養되며, 清熱利咽하고 겸하여 諸藥을 調和하는 使藥이 된다<sup>2)</sup>라고 하였으나, 大棗 粳米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甘草는 佐藥과 使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犀黃丸에서는 黃米飯이 胃氣를 調養하여 그 邪氣가 胃를 장애하지 못하게 하므로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sup>2)</sup>, 여기서는 黃米飯을 추가하여 胃腸에 부담을 줄이고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君藥이나 臣藥을 도와 치료효과를 증강시키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그 외에 小建中湯, 四神丸, 蘇子降氣湯, 地黃飲子, 歸脾湯, 八珍湯, 藿香正氣散, 防己黃芪湯, 杏蘇散 등에서 生薑과 大棗를 和中華거나 營衛를 調和하므로 使藥이 된다고 하였는데<sup>2)</sup>, 營衛를 調和하는 효능은 使藥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며, 君藥이나 臣藥을 협조하는 佐藥으로 보는 것이 좋다.

## V. 結 論

處方の 配伍에 이용되는 君臣佐使藥중에서

실제 임상에서 使藥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물에 관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引經의 의미로 활용된 使藥으로는 牛膝, 桔梗, 朱砂, 食鹽, 酒, 升麻, 柴胡가 있었다. 이 중에서 牛膝은 下行하게 하였고, 桔梗은 上行하게 하거나 肺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朱砂는 心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食鹽은 腎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酒는 藥勢를 잘 퍼주면서 病所로 이끌어 주는 의미가 있었으며, 柴胡·升麻는 頭面으로 上達하도록 하였다.
2. 諸藥의 調和의 의미로 활용된 使藥으로는 甘草가 대부분이었으며, 丸劑의 경우에는 蜂蜜, 攻下藥의 경우에는 大棗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7. 徐富一, 金先熙, 卞俊哲: 處方에서 活用되는 “加生薑, 大棗”의 意味에 관한 연구, 방제학회지, 6(1): , 1998.

## 參 考 文 獻

1. 李尙仁, 朴宣東: 韓方臨床處方學, 영림사, 서울, 1998, pp.26-28, 47-400
2. 金相贊, 金先熙, 盧昇鉉, 朴宣東, 卞晟儁, 徐富一 등: 方劑學(改正增補版), 永林社, 서울, 1999, pp.40-43, 65-612.
3. 康秉秀, 高雲彩, 金先熙, 盧昇鉉, 朴涌基, 徐富一 등: 本草學(訂正4版), 永林社, 서울, 1998, pp.540-544,
4. 申載鏞: 方藥合編解說(再版), 成輔社, 서울, 1989, pp.21-521, 609.
5. 辛民教: 鄉藥大事典, 永林社, 서울, pp.297, 515, 582
6. 徐富一, 朴芝河, 卞晟儁, 金相贊: 韓藥臨床要訣, 慶山大學校出版部, 慶山, 2000, pp.83, 153.